

협회소식 / 116

건축계소식 / 120

현상설계경기 / 123

계획작품 / 126

해외잡지동향 / 129

신입회원 / 135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6

게시판 / 138

협회소식 KIRA news

**「건설업체 건축설계업 진출」
강력 저지**

규제개혁추진회의, 중요성을 감안
유보키로

공정위의「건축설계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우리협회가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집회를 여는 등 건축설계업계가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일 열린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공정위의 규제방안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신중히 재검토해 7월말로 예정된 차기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경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공업체도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턴키공사와 연면적 2만㎡ 이상인 자기 시공공사의 설계를 허용하거나,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을 확정하므로써 건축설계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협회 또한 지난 6월9일에 열린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단계로 현장조사·검사업무와 정부위탁업무를 전면거부하고 2단계에는 건축사의 건축행정업무와 정부위탁업무 전면 중단, 3단계에서는 건축사 면허의 반납과 건축사 업무를 전면포기한다는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하고 지난 달 30일 전국 건축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집회가 열린 서초동 협회회관 앞은 공정위의 설계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침이 '자본을 앞세운 재벌건설업체들의 설계·시공 독점기도에 동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실건축을 합법적으로 용인해줌으로써 우리의 건축문화를 말살시키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각종 구호와 피켓들

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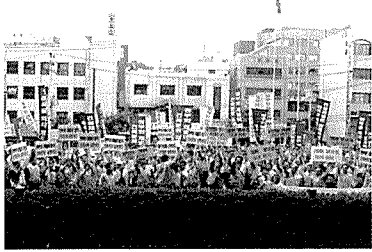
우리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주체로서 자본을 앞세운 재벌 건설업체의 『설계·감리·시공』 독점기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을 빙자한 재벌 비호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6,500여 건축사와 50,000여 종사자는 이를 『전문화 역행시책』, 『건축문화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전국 건축사의 이름으로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1단계-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와 정부위탁업무를 전면 거부한다.
- 2단계- 건축사의 건축행정관련업무와 공사감리업무를 전면 중단한다.
- 3단계- 건축사면허를 반납하고 건축사업무 일체를 전면 포기한다.



규탄집회 광경



토론회 광경

로 가득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3백5십여 명의 회원들은 공정위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건축설계분야의 규제진입 완화 방침'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건축사업의 일체 포기는 물론 건축사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규탄하는 한편 건축설계업 보장을 위한 전건축인의 결집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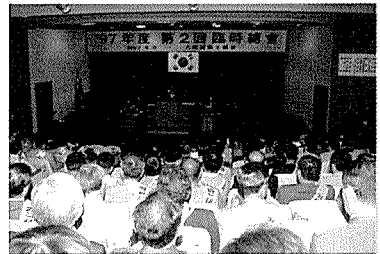
또한 이날 규탄시위에 앞서 협회대강당에서는 오후 2시부터 '건설산업의 설계·시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이달초 공정위는 우리 협회가 규탄 집회를 열고 시리즈 형식으로 회원들의 단계별 대응결의가 담긴「국민앞에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광고를 연이어 게재한데 대해 이들 대응책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광고경비 내역과 관련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써 협회의 초강경 대응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현재 협회 당면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이 사안은 지난 7월 2일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건설업체에 유리한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받아들여져 유보되므로써 최종 채택여부는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인 제6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진입 반대」
결의문 채택



임시총회 광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설계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화시키려 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결사저지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6월 9일 오후2시 협회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4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당면 최대 현안인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문제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이들 현안의 심각성이 말해주듯 이날 임시총회는 대의원들의 높은 참석률속에 시종 열띤 토론과 강경대응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김영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위의 재벌건설업체 설계진입 허용은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문화 수호차원에서도 반드시 저지시켜야만 한다」고 밝히고 「현안문제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모아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대의원들은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진입이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

거반에게 드리는 말씀 / 시리즈 1.

“정부와 재벌의 합작, 건축문화 실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길 것인가?

▶ **정부는**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재벌은**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건축사협회는**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대안건축사협회**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거반에게 드리는 말씀 / 시리즈 2

“개혁방자 재벌비호, 개혁정책 실종된다”

재벌의 '설계·시공' 독점,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재벌**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건축사협회**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대안건축사협회** 1988년 12월 29일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는 재벌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중양·조선·동아·매경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 전문

별 건설업체들의 자본논리로 말미암아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결국은 건축문화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건축사업무 중단은 물론 면허반납도 불사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날 대의원들은 열띤 토론 끝에 '우리건축사들의 결의'란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정위의 설계시장 진입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키로 하는 한편 이에대한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다수의 대의원들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중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문제와 관련해 기술사에게도 대표자 자격을 허용토록 완화한데 대해 절대불가 의견을 밝히자 이를 부의안건으로 정식 채택해 결의문내에 설계감리 관련문구를 삽입키로 결의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의 각 부의안건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회의안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반대」의 건
 -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키로 함.
 - 1단계 :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 및 정부위탁업무 전면거부
 - 2단계 : 건축사의 건축행정관련업무 및 공사감리업무 정면중단
 - 3단계 : 건축사면허 반납 및 건축사업무 일체 전면 포기
-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집행부에 위임
- 필요시 반대집회 개최
- 제2회의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심의의 건
 - 결의문내에 설계감리 관련 문구를 삽입키로 함
 - 문안작성은 집행부에 위임

이사회 개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겸업」 등 현안문제 협의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30일(제8회)과 6월 19일(제9회), 6월 30일(제10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회차별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8회

〈부의사항〉

- 제1회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 변경 승인의 건
 - 유보 (계약내용 및 진행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 제2회의안 :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승인의 건
 -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함
 - 일시 : '97. 6. 9(월) 14:00
 - 장소 : 협회 강당
 - 의제 :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반대」의 건
 - 총회개최 통보시 경제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삽입
 - 동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추진계획(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
 - 대책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

● 제9회

〈부의사항〉

- 제1회의안 :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정명석 회원 : 권리정지

6월)

- 제2회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개발 용역 및 시스템 구축계약의 추가계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기간연장 : 1개월, 금액추가 : 1,800만원)
- 제3회의안 : 97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예산범위내에서 항목조정 : 364,649,000원)
- 제4회의안 : 건축사시험 응시원서 판매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응시원서대 : 2,000원)
- 제5회의안 : 외국인고용추천서 발급규칙 제정 승인의 건
 - 수정승인 (일부 용어를 추가 및 삭제하고 제출서류중 "법무부의 신원조회서 1부"를 추가)
- 제6회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원 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연구원 2인 : 안중현, 경승원)

● 제10회

〈부의사항〉

- 제1회의안 : 한·몽 교류증진을 위한 장학사업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월 200,000원 / 1인)
- 〈협의사항〉
 - 제1호 :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한 협의
 - 제7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97. 6. 30. 11:00 개최)에서 합의한대로 추진키로 함
 - ※ 제7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협의사항 주요내용
 - 정책토론회 종료후 협회내에서 구호연창 등 반대이사를 표현하기로 함
 - 규제개혁추진회의(7월 2일 개최 예정)시 협회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강력 대응키로 함
 - 대책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집행방법 강구
 - 차기회의(7월3일 개최 예정)시 결의사항 1단계 집행 결정

제주도건축사회

「'97제주건축 세미나」 개최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 주제로



세미나 광경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강행생)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을 주제로 건축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건축문화의 속내와 제주다운 건축이미지를 찾아내 현대건축에 되살리므로써 지역 건축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건축관계자를 비롯한 제주시민 약 190여명이 참석해 지역건축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약 4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병기 구미전문대학장은 '지역성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는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에 적합한 건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연구발표와 토론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건축계획시부터 창작활동의 개념근거를 향토성에 바탕을 두어 설계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이의 정착을 위해 건축 미관심의 강화와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을 제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홍식(명지대 교수), 김중근(제주도건설교통국장), 김석윤(제주건축사회 건축위원회 위원장), 허영주(건축위원)씨를 비롯해 지정토론자로 김정동(목원대 교수), 김태일(제주대 교수), 양상호(동원산업대 교수), 신석하(제주전문대 교수), 김창우(제주건축사

회 전회장) 씨 등이 참가했다.

제7회 경남건축대전 작품공모

일반공모전 및 완공건축전 2개부문

경남건축사회(회장 허필도)가 건축문화의 질적향상과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7회 경남건축대전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올해 공모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공모전과 완공건축전 두 개 부문에 걸쳐 출품작을 공모한다. 일반공모전의 응모자격은 경남도내 건축학 전공 학생이나 건축설계업무 종사자로 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이어야 하며·완공건축전은 올해 10월이전까지 경남도내에 건립된 건축물로 설계자(건축사사무소 등록자)에 한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발표된 응모요강의 주요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작품규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모전 : 가로100cm×세로200cm (또는 가로 60cm×세로90cm) 패널 3매이내
가로90cm×세로90cm×높이60cm 모형 1점
- 완공건축전 : 가로60cm×세로90cm 패널 2매이내
가로90cm×세로90cm×높이60cm 모형 1점
- 공동작은 2인 이내여야 하며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반사성 재료 또는 운반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의 사용을 금함

2. 원서교부기간 및 접수일

- 원서교부 : 1997. 7. 10일부터
- 작품접수 : 1997. 11. 8. 09:00 ~ 18:00

3. 심사결과 발표 : 1997. 11. 10(예정)

4. 시상 : 1997. 11. 15. 11:00

- 일반공모전
 - 대상(경남도지사상) 1점 : 상금200만원 및 상패(해외여행시 경비지원)
 - 특별상(경남건축사회회장상) 1점 : 상금 10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2점 : 상금 각 50만원 및 상패
 - 특선 5점 : 상금 각 30만원 및 상패
 - 입선 (다수) : 상패
 - 완공건축전
 - 금상 : 상패
 - 은상 : 상패
 - 동상 : 상패
5. 작품접수처 및 전시장소 : 추후 별도 공고
6. 수상작전시 : 97. 11. 12 ~ 11. 15
7. 문의 : 경남건축사회
(0551-46-4530~3)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5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회원 및 독자 임직원 100여명 참석해 축하



리셉션 광경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세훈)가 발행하는 서울건축사신문이 창간5주년을 맞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협회회관 로비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회원과 독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서울건축사신문의 창간 다섯돌을 축하하고 독자와 함께 하며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언론매체로서의 발전을 기원했다.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서울건축사신문은 97년 6월 16일 현재 제116호가 발행됐다.

경기도건축사회 원로회원 경로소연회 열어

전임회장 등 65세 이상 원로회원 초청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윤영재)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수안보 와이키키호텔에서 원로회원을 초청해 경로소연회를 개최하였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된 이 행사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전임회장과 65세이상 경로회원 등 40여명이 참가해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건축사회 제3회 회원작품전 작품공모

일반공모전 및 완공건축전 2개부문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에서는 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에 대한 일반의 저변확대를 위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회원건축작품전을 개최한다. 출품작은 작품의 소재지나 종류(완공부문, 계획부문, 기타)에 제한없이 90cm×75cm 규격의 패널 2매에 담아 제작하면 된다. 7월 14일부터 출품신청서를 접수하며 작품제출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전시회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예당에서 열린다.

건축계소식 archi-net

제2회 청년작가 실험展 -안티키취의 지형학 '항성'

현실비평연구소가 자체선정한 청년작가 「대상전」과 대표작가 「초대전」으로 구성

현실비평연구소가 주최하고 경인미술관이 후원하는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이 오는 8월9일부터 16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최측이 선정한 청년작가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기성건축가들의 작품세계와 건축언어가 전시라는 형식을 빌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건축정신을 중심에 두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항성'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다 많은 대중과 문화영역에 '건축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초대작가로는 김태수, 조건영, 강남구 씨가, 대상작가로는 김태우, 조병수, 정창석, 박종원, 강일원, 조용범 씨가 참여한다. 현실비평연구소측은 이번 전시의 주제인 '항성'에 대해 일정한 형식 또는 예술품이나 건축물을 특징짓는 표현형태로 특정한 시기, 유파, 작가 등을 나타내는 말을 양식이라 할 때 양식은 뭔가 공통적인 특성을 카테고리화 하기 위한 분류어이며 다소 현학적인 시각으로써 역사적 또는 시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상대적으로 이번 전시의 주제인 '항성'은 시대양식, 지역양식 등의 집합적 개념을 보유한 작가의 자기표상으로써 의식개념이라고 밝혔다

창덕궁·수원華城,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듯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문화유산 목록 등재 권고 결정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장경판고, 종묘에 이어 수원 화성(華城)과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정식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회의는 지난 6월 27일 우리나라의 창덕궁과 수원 화성에 대해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창덕궁과 화성은 올해 12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결정을 거쳐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정식 등재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12월 제19차 위원회에서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장경판고, 종묘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었다.

한국건축가그룹 金友會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미나, 전시회, 리셉션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 열려

뜻을 함께 하는 건축인들이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고 연구·전시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해 온 금우회(회장 이병호)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7일 오후6시부터 서울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금우회 회원들과 건축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초청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세미나와 출판기념회, 기념리셉션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금우회는 지난 1967년에 발족돼 매년 정기적으로